百濟石塔과 新羅石塔의 比較論的 考察*

천득염
(全南大學校 建築學科 副敎授)
한승훈, 김진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1. 序(百濟石塔과 新羅石塔의 始原에 관한 論據)

대체로 우리나라의 始原石塔은 두가지 양상으로 韓半島의 東西에서 서로 대립하여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論據가 있을 수 있다. 즉 한국석탑의 시원을 하나의 뿌리에서 찾느냐 아니면 두개의 뿌리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이다. 하나의 뿌리에서 찾는 논거는 彌勒寺址석탑이 한국석탑의 시원형으로서 위치하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定林寺址석탑과 芬皇寺模塼석탑으로 분리되어 발전한다는 견해이다. 두개의 뿌리에서 찾는 논거는 아예 출발부터 미륵사지석탑이 반도의 서쪽인 백제에서 출발하고, 분황사모전석탑이 반도의 동쪽인 신라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출발하였다는 견해이다.

이 문제는 지극히 난해하여 쉽게 결론이 도출될 문제가 아니나 다만 목조탑을 새로운 재료로 탈바꿈시키고 고유한 한국적 정서에 적응하면서 목조탑을 모방한 미륵사지석탑과 중국적 감각과 재료에 의해 축조된 분황사모전석탑이 양국을 대표하는 시원적 석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의 서쪽에 위치하였던 백제는 신라에 비하여 다소 앞서 재래의 方形多層樓閣형식인 목조탑파의 양식을 석재로써 착실히 다져나갔을 것이고 이에 반하여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古新羅에 있어서는 먼저 목조탑의 형식을 취하였으되 백제와는 다른 새로운 재료와 양식으로 변모해 나갔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의 시원형탑으로 왜 전탑형식이 갑자기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탑은 목탑으로 출발하여 석탑으로 변모하였다는 견해가 보편적 이론이기 때문에 塼塔형식의 출현을 받아들이는데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신라의 시원석탑은 隋.唐이래 갑자기 융성하던 중국식 전탑을 모방한 양식으로서 출발하였을 것이라는 하나의 가정과 백제의 시원석탑에서 전형석탑으로 변모해나가는 과정에서 이형적인 모전석탑이 신라에서 나타났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는 다소 막연한 결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석탑의 커다란 줄기를 이루는 兩石塔양식의 근원을 고찰해보고 구체적으로 이들 탑양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막연히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것보다 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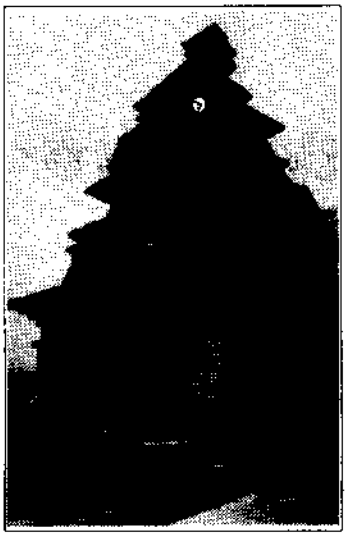

사진 1. 미륵사지석탑 전경

해석과 불교문화의 전달, 전파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것이다.

2. 한국석탑의 발생과 시원양식

한국의 불탑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고 가람조영이 개시되면서 부터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나 당시의 堂塔伽藍이 대부분 목조였던 관계로 오늘날 그 유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4세기말, 문화교류과정에서 중국의 六朝文化에 이어 隋.唐을 통한 문물교류 관계가 밀접하였던 사실과 당시의 중국탑파 형식의 본류가 목조루각형탑파였던 사실에 비추어 한국탑파의 초기형식은 高層樓閣形式의 목조탑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중국에서의 초기 建塔시기를 2-3세기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불교전래시기인 4세기 후반은 곧 중국식 탑파양식이 그대로 전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

그러나 아직까지 불교의 전래 시기에 속하는

사진 2. 미륵사지석탑 1층탑신부

불탑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三國遺事」 등에 그 당시의 塔像을 설화형식으로 전할 뿐이다. 이러한 전설적인 기록으로서는 遼東城 育王塔[2]에 대한 기록을 비롯하여 平壤 大寶山下의 高麗靈塔寺[3]와 金官城 婆娑石塔[4]에 관한 기록을 들 수 있으나 아들은 모두 설화적인 것으로 그 유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한국의 불탑은 결국 시원적인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모되었는데 석탑의 발생시기는 삼국시대 말기인 600년경으로 추정된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말엽까지 약2백년간은 목탑이 건립되었던 시기로 목탑이 갖는 불리함에 비하여 석탑이 갖는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장기간 동안 木塔建造에서 쌓여진 기술과 전통의 연마가 석탑을 발생케 한것으로 보인다.[5] 즉 석탑의 발생초기에는 목탑과 공존하는 시기가 얼마간 지속되다가 석탑으로 자리바꿈을 하게되는 것이다. 불교전래초기의 목탑은 三國 모두 中國式 高樓形 목탑형식을 따라 루각형식의 다층으로 4각 혹은 다각의 평면을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은 현재 남아 있는 당시의 유구들에 의한 것인데 고구려의 유적으로는 淸岩里寺址의 八角기단과 上五里寺址의 팔각기단부가 발굴되어 목탑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백제의 유구로는

* 본 논문은 199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1) 張忠植, 新羅石塔研究,一志社 p.174.

2) 三國遺事, 卷三, 遼東城育王塔條.
3) 三國遺事, 高麗靈塔寺條.
4) 三國遺事, 金官城婆娑石塔條.
5) 高裕燮, 韓國石塔研究, 同和出版公社, p.95.
張忠植, 전게서,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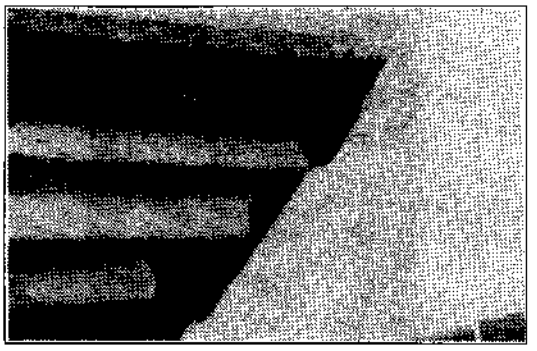

사진 3. 미륵사지석탑 옥개층급받침

부여의 軍守里寺址와 익산의 帝釋寺址에서 四角의 목탑기단지가 발견되었다. 신라의 유구로서는 경주시 皇龍寺址의 9층목탑지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것이다.[6]

한국석탑의 시원형식을 논하는 데 있어서 日政時代에는 彌勒寺址석탑과 定林寺址석탑의 건립년대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했으나 高裕燮 이후로 다소 정리되어 미륵사지석탑이 앞선 형식이라 하여 그 先後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근래 정림사지 발굴결과 이 석탑의 건립연대를 寺刹草創에 준하는 6세기 전반으로 보려는 견해가[7] 있고 또 이같은 내용을 추종한 논문들이[8]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彌勒寺址石塔은 百濟武王代(600-641)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韓國最古最大의 석탑으로서 목조가구의 세부까지도 석재로 충실하게 모방하여 백제에서의 목탑에서 석탑으로 轉移와 발생과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유구라 할것이다.(사진 1,2,3참조)

정림사지석탑도 미륵사지석탑과 함께 백제석탑이 목탑의 번안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백제탑형식중 전형적인 석탑이라 할것이다. 이 석탑은 각부의 양식수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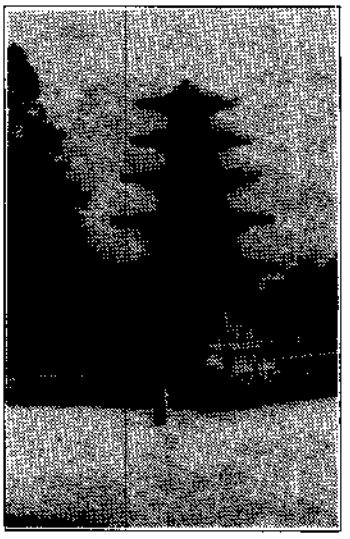

사진 4. 정림사지5층석탑 전경

특이하고 본격적인 석탑으로 정착하고 있는 轉移的인 규범을 보여주고있어 한국석탑의 계보를 정립시키는데 귀중한 존재가 되고있다.(사진 4참조)

한편 고신라의 석탑은 善德女王 3년(634)에 건립된 芬皇寺模塼石塔으로 그 祖形을 삼을 수 있겠으나 이 탑은 전탑이 아니라 安山岩의 石片을 瓦塼과 같이 모방하여 쌓은 석탑으로 그 수법이 중국의 大雁塔(陝西省 西安府 慈恩寺)과 동일한 점에서 전탑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신라탑의 초기 양식을 전탑에 국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塼材의 비생산성과 비경제성은 결국 신라석탑의 독특한 양식을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바로 신라 일반형석탑 즉 전형석탑이라고 부르고 있다.(사진 5참조)

분황사모전석탑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다음의 것으로는 慶北 義城塔里五層塔을 들 수 있는데 이 석탑은 석재로서 전탑양식을 모방한 것이나 분황사석탑과는 달리 목조탑을 나타내는 새로운 착상과 古手法의 간략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

6) 목조탑은 三國史記 권28에 나타난 天王寺塔과 道讓寺塔이 있고, 고구려의 淸岩里寺址, 上五里寺址, 定陵寺址, 元五里寺址와 백제의 大通寺址, 軍守里寺址, 舊衙里寺址, 金剛寺址, 扶蘇山 西腹寺址, 彌勒寺址, 帝釋寺址와 신라의 皇龍寺址, 四天王寺址, 望德寺址등이 있다.

7) 尹武炳, 定林寺, 충남대학교 박물관.

8) 文明大, 百濟佛塔의 一考察, 남도영박사 회갑기념논총.
洪再善, 百濟系石塔의 硏究, 황수영박사 고희기념미술사학논총,통문관,1988, pp.283 -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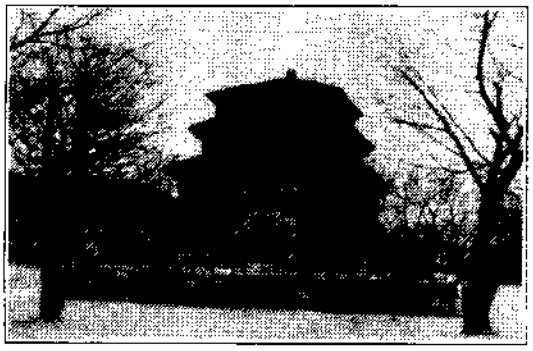

사진 5. 분황사모전석탑 전경

다.(사진 6,7참조) 이 석탑은 상기한 백제시대의 두탑과 같이 기단부의 隅柱, 撑柱나 塔身의 우주에 上狹下廣의 민흘림이 나타나고 있어 이 석탑도 백제시대의 두석탑과 같이 목조탑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긴 석탑발생의 초기적 유구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은 단층기단위에 선 5층석탑으로 총 높이 약30.5척이며 초층탑신에 나타나는 목조형식과 옥개부분에 나타나는 전탑의 계단형쌓기는 전탑모양으로 되어 木塼混合형식을 하고 있다. 이 탑을 흔히 模塼塔이라고 하나 민흘림 角柱, 접시받침형 柱頭, 昌枋石과 平枋石, 龕室등으로 보아 오히려 模木塔에 가까운 탑이며 미륵사지석탑이나 정림사지석탑과 같은 형식의 탑이라 할 수 있다.[9](그림1)

이상의 초기석탑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의 석탑은 화강암을 사용하여 목탑계양식을 따른 반면, 고신라는 화강암과 안산암을 혼용하여 전탑계양식을 전형적양식으로 삼았으며 목탑적인 요소도 다분히 갖추고 있다 할것이다. 또한 양국의 초기석탑은 그 기본평면을 정방형으로 하여 다층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석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다.[10]

한편 이들이 모두 7세기 초엽에 이루어진 사실은 두 나라 석탑 발생시기를 거의 같이 하고 있다 하겠으나 서로 다른 조형의장적 양식계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백제의 석탑은 기존의 목탑에서, 고신라의 모전석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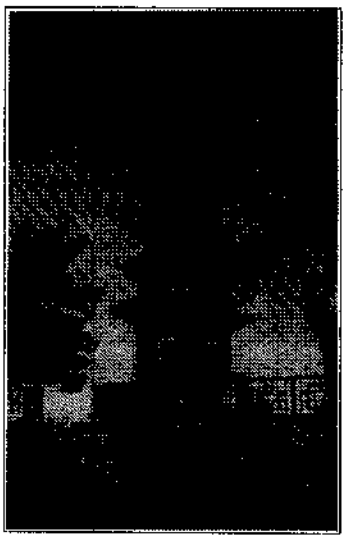

사진 6. 의성탑리5층석탑 전경

수.당의 전탑계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겠으나 목탑적인 요소도 다분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결국 이들 두나라 시원 양식은 그 후 얼마 안되어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적인 새시대를 맞아 하나로 합쳐지면서 또 다른 양식, 즉 전형적인 신라탑양식으로 변모하게 된다.

3.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된 직후 경주를 중심으로 불교가람의 건립은 절정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상대적으로 백제의 중심지였던 공주나 부여지방에서는 불사조영이 중지되었고 불탑의 설립도 없었다.[11] 신라의 승리로 얻은 통일은 모두 불덕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불교가람의 창건은 곧 나라의 수호와 백성의 교화와도 일치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사원건축에 남다른 발달을 보았던 백제의 많은 공인들이 참여한 사실은 통일신라초기의 사원건축이나 조형작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사의 조영과 더불어 탑파의 건립도 번성

9) 鄭永鎬, 百濟의 石塔과 그 傳播, 百濟의 彫刻과 美術, 공주대학교 박물관, 238쪽, 1992.

10) 鄭永鎬, 韓國石塔樣式의 變遷, 韓國의 美 9, 石塔, 中央日報社刊, 1989, p.171.

사진 7. 의성탑리5층석탑 柱頭

하였는데 삼국통일과 함께 백제와 고신라의 각기 다른 두 양식을 조합하여 새로운 양식을 갖추게 된다. 통일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맡아 집약정돈된 형식으로 건조된 석탑중 시원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感恩寺址東西三層石塔과 高仙寺址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

감은사는 삼국통일의 영주인 文武大王이 창건한 호국사찰로서 그의 아들 神文王 2년(682)에 낙성하였다. 지금은 폐사된 터에 동.서에 3층석탑 2기가 전할 뿐인데 건립연대는 삼국유사 권2 萬波息笛條의 기록으로 같은 시기인 682년으로 볼 수 있다.(사진 8참조) 이 양탑에서는 삼국말기 신라와 백제 두나라의 석탑양식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다. 감은사지 3층석탑은 2층기단 위에 3층탑신과 상륜을 형성한 한국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이탑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각부구성이 백제석탑 처럼 많은 석재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낙수면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며 轉角에서 反轉이 뚜렷한 점 등이 목조건축의 구조성이나 의장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즉 기단부나 탑신부를 막론하고 목조건축을 모방한 흔적이 뚜렷하여 이를 석재로 구현함으로서 신라석탑 나아가서 한국석탑의 초기형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단밖으로 판석을 깔고 그 밖으로 다시 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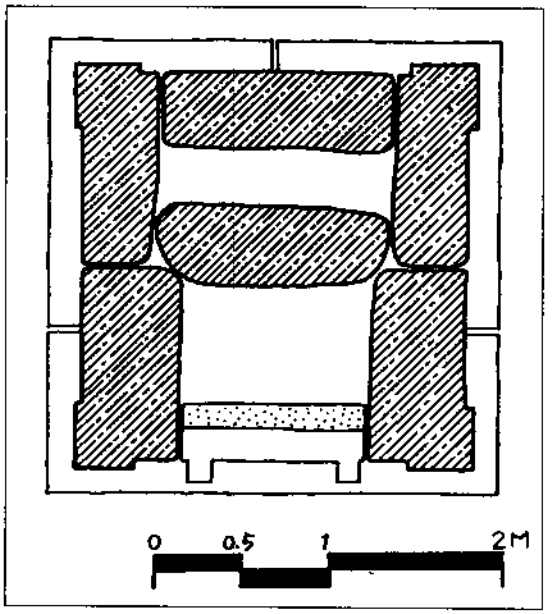

그림 1. 의성탑리 5층석탑 1층 평면도

석을 돌린 塔區를 마련하였으며 하층기단은 지대석과 면석을 동일석으로 다듬어 12매의 석재로 구성하였으며 갑석 또한 12매이다. 상층기단면석 역시 12매석에 갑석은 8매로 구성되었다. 하층기단의 탱주의 수가 3柱이고 상층기단의 탱주수는 2柱이며 초층탑신의 우주도 역시 4매의 別石을 세웠고 그 사이에 4매의 면석을 끼워넣었다. 이들 우주와 탱주의 짜임은 홈을 파서 면석을 끼워넣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층탑신석은 각각 한쪽에 우주를 하나씩 모각한 판석을 4매로 조립하였다. 옥개석은 낙수면부와 받침돌이 별석으로 각기 4매석으로 구성되었으며 옥개받침은 각층이 5단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라석탑의 정형적인 모태가 되어 갑석에 부연을 표현하였고, 옥개받침이 5단이며 낙수면은 지붕모양으로 경사를 나타나게 하였다. 또한 탑신의 괴임수법도 상층기단을 받는 하층기단 갑석 상면의 괴임은 각형2단이며 각층 옥개석 정상에 각형2단의 괴임을 각출하여 그 윗층의 탑신을 받치고 있다.

이탑의 형상이 고선사지석탑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한데 부분적으로 다른점은 초층탑신에 龍室

11) 千得琰, 百濟系石塔의 造形特性과 變遷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鄭善宗, 百濟石塔에 관한 一考察, 史學志 제20집, 1986, 단국대학교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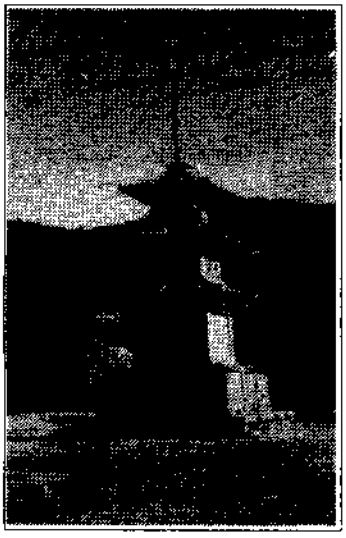

사진 8. 감은사지3층석탑 전경

形 模刻이 없는 점으로 이는 이미 塊體性의 석탑에 내부공간의 잔영이 사라졌다는 것이며 옥개석의 물매도 고선사지석탑이 중후, 둔중함에 비하여 감은사지석탑은 平薄하고 완만하여 초기석탑임을 정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통일직후의 또 다른 석탑인 高仙寺址三層石塔(사진9)은 상하층 기단의 面石과 甲石이 여러개의 석재로 결구되어 있고 하층기단의 탱주가 3柱이고 상층기단이 2柱인 점등이 역시 목조건축의 기단부를 모방한 신라석탑의 시원적인 양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하층기단의 지대석과 중석이 동일석으로 되어 있음은 감은사탑의 경우와 유사하다. 탑신부도 초층은 면석과 우주를 따로이 독립시켜 8매석으로 나타내고 2층의 탑신은 4매석으로 조립하였는데 1매의 판석에 1우주와 1면석을 함께 모각하였다. 반면 3층의 경우는 1매석에 우주를 모각하였다. 이처럼 여러개의 석재로 조립된 것이 역시 백제탑형식과 같이 목조건축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층의 옥개석이 층급받침과 낙수면이 별석인 8매석으로 田字형식으로 조립되어 아직 단일석으로 塊體性을 보이지 않는 점등이 신라탑의 초기적 양식으로 주목된다. 또한 네모서리의 전각에서 반전이 뚜렷한 것은 목조건축의 지붕을 모방한 의장적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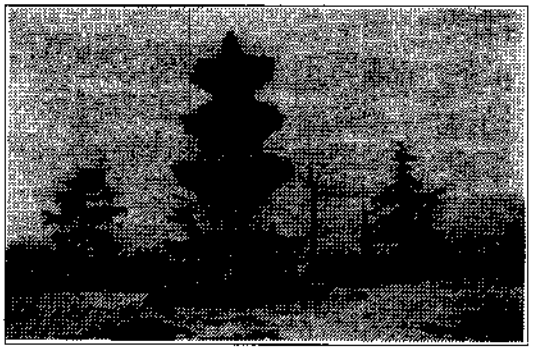

사진 9. 고선사지3층석탑 전경

으로 볼 수 있다.(도면2)

탑신의 괴임형식은 상층기단 갑석위에 마련된 탑신괴임대를 비롯하여 각층 옥개석 상면에 각출된 탑신괴임은 모두 높직한 각형2단인데 이것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석탑의 규모에 따라 축소되거나 변모되기도 하나 2단은 불변한 것이니 시원적인 석탑에서 나타난 하나의 규범이라 하겠다.

이 석탑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초층탑신 각면에 조각된 戶形龕室로 탑신부에 門扉를 조각한 것은 이 석탑이 가장 오래된 일로서 의성탑리석탑과 비교된다. 이곳 고선사에는 元曉大師가 주석한 사실이 있고 그가 신문왕 6년(686)에 입적하였으니 이 석탑의 건립연대를 686년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 이 탑의 조성연대를 삼국시대로는 도저히 올려 볼 수 없고 감은사탑에 준하는 7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웅장한 형태라든가 남성적 기상이 흘러넘치는 위용은 삼국통일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건실한 탑이다.

이후 통일신라석탑은 감은사와 고선사 양탑을 규범적인 것으로 본을 삼아 차차 축소되고 간략화되어 변모해 가게 된다. 즉 양탑과 같은 초기적인 가구형식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복잡성이 차차 약화되고 간단해지며 단일석에 모각을 한 塊體性을 띠게 된다. 羅原里五層石塔(사진10)에서는 탑신부에 있어 탑신은 2층이상부터 옥개석은 3층이상부터 모두 단일석이며 탑신에 兩隅柱가 각출되고 옥개석에는 하면에 층급받침이 단일석에 마련되어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 라원리5층석탑 기단부의 형식은 고선사탑이나 감은사탑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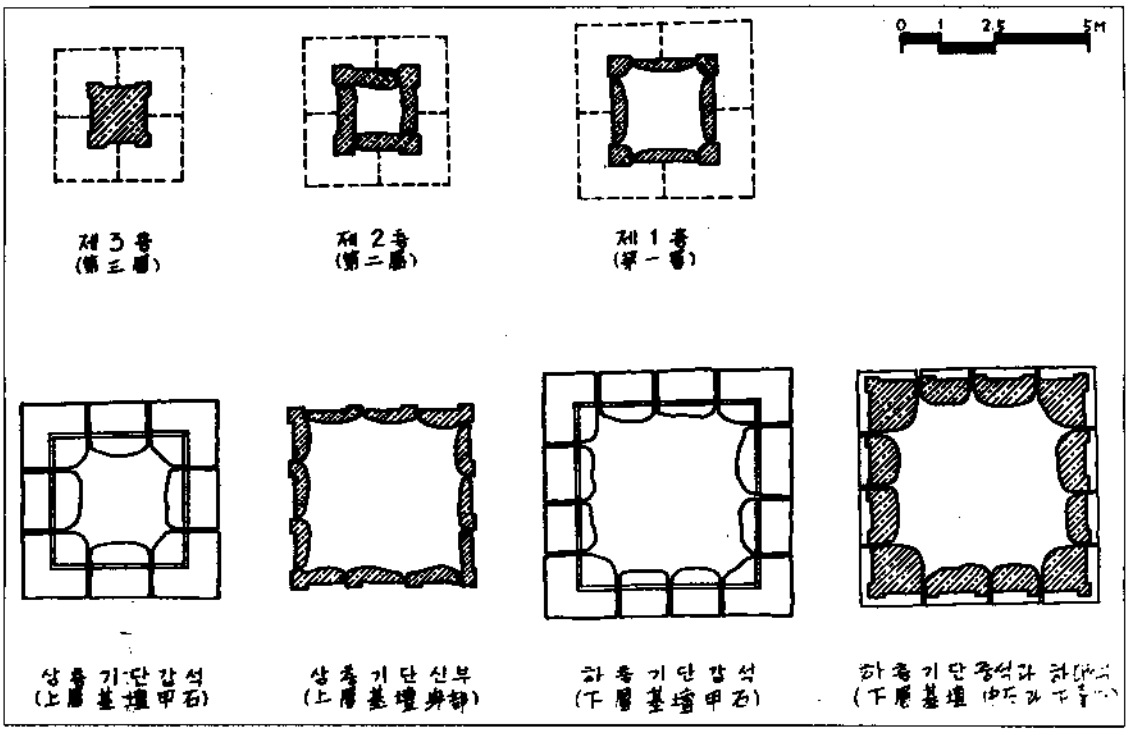

그림 2. 고선사지 3층석탑 분해도

우와 똑 같으나 초층탑신의 구성에 있어 각면의 면석과 우주가 단일석으로 합쳐졌고 이 4매의 단일석은 판석으로 서로 엇물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석탑조영의 간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경주시 九黃里三層石塔(일명 皇福寺址3層石塔)은 기단부에 있어서 하층기단의 탱주가 3개에서 1개가 감소하여 2개로 줄고 탑신도 각면을 판석으로 조립한것이 아니라 단일석으로 만들었으며 우주도 별도의 石柱를 세운것이 아니라 각층 탑신석 모서리에 각출하여 모각한것이다.이 석탑에서는 孝昭王 元年부터 聖德王5年(692-706) 사이에 신문왕등 전대 왕족의 명복을 빌어 건립하였다는 명기가 나와 건립년대를 알 수 있다.(사진 11참조)

이들 탑 이후에 경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석탑으로서는 月城郡 獐項里五層石塔, 慶州市 千軍洞東西三層石塔, 佛國寺三層石塔, 金陵 葛項寺東西三層石塔, 경주시 馬洞寺址三層石塔, 경주군 龍明里寺址三層石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석탑들은 700년경부터 8세기 중엽에 건립된 3층 내지 5층탑으로 하층기단의 탱주수가 줄고 탑신과 옥개석이 각각 단일석으로 만들어지며 전체의 높이도 대략 3내지 7척정도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모두 신라의 서울인 경주와 그 주변에 세워진 것들이며, 그후 점차 지방으로 전파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한 예로 9세기 중엽에 세워진 長興 寶林寺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상하층기단 면석의 탱주가 下2柱, 上1柱로 되어 있고 옥개받침은 아직 5단이다. 이러한 형식에 속하는 탑으로는 榮州 浮石寺三層石塔, 陜川 淸凉寺三層石塔, 山淸 斷俗寺址東西三層石塔 등이다.

시대가 통일신라말기로 내려오면 석탑의 규모가 작아지고 구성요소들이 간략화된다. 이 시기는 왕위쟁탈을 위한 골육상쟁과 지방세력의 대두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러한 사회상황 속에서 국왕이나 귀족의 願刹에 탑파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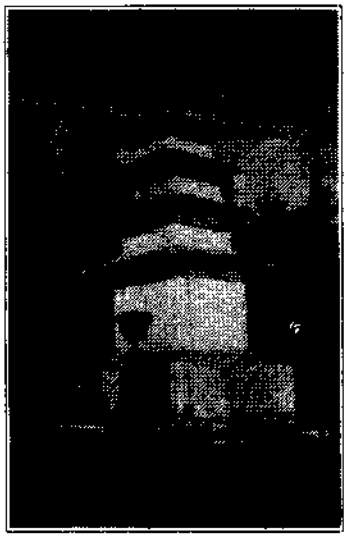

사진 10. 라원리 5층석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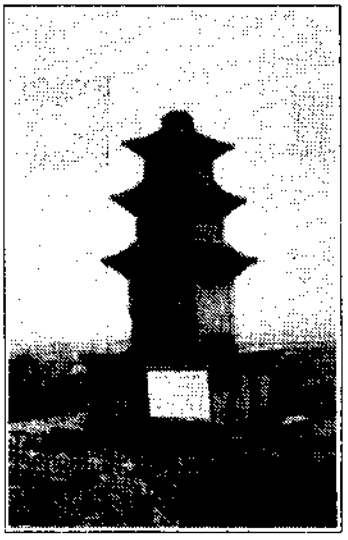

사진 11. 구황리 3층석탑 전경

이 시기에 세워진 탑의 예로는 南原 實相寺東西三層石塔을 들 수 있다. 실상사는 흥덕왕과 宣康太子의 願刹인데 이 탑은 상하기단의 탱주가 상하 각각 1주이고 옥개받침 수도 4단으로 줄었다. 이 형식에 속하는 탑으로는 대구 桐華寺 金堂庵東西三層石塔,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 奉化 西桐里東西三層石塔등이 있다.

통일신라 하대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일반형 석탑에서는 기단부가 기본형인 2층기단이던 것이 단층기단으로 변한다. 이러한 예로는 聞慶 內化里三層石塔, 鳳岩寺三層石塔 등이 있는데, 이같은 양식은 고려시대까지 계승된다. 또 자연암반 위에 기단면석을 조립하는 석탑의 예도 있는데, 慶州 月城의 茸長寺谷 三層石塔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12]

이러한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그 지역성을 강조한 형식으로 조영되었는데 이를 開京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신라의 옛땅 경상지역, 백제의 옛땅 충청, 전라지역등에서 건립된 탑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百濟石塔과 新羅石塔의 比較分析

가. 始原과 그 系統의 問題

서론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석탑의 시원을 하나의 뿌리에서 찾느냐 아니면 두개의 뿌리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하나의 뿌리에서 찾는 관점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시원적으로 출발하여 정림사지석탑과 분황사지모전석탑으로 분리되어 변천되어 간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두개의 뿌리에서 찾는 방법은 아예 두개의 뿌리로 미륵사지석탑이 반도의 서쪽인 백제에서 模木塔으로 출발한 것이고, 분황사모전석탑이 반도의 동쪽인 신라에서 模塼塔형식으로 부터 출발된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문제는 쉽게 규정지을 성격의 것이 아니나 목조탑을 새로운 재료로 탈바꿈시키면서 한국적 정서에 적응하고 목조탑을 모방한 미륵사지석탑과 중국적 감각과 재료에 의한 분황사지모전석탑이 백제와 신라 양국의 시원적석탑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하겠다.

다만 두가지 상황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받는다면 목탑의 형식으로 출발한 한국의 석탑은 백제와 신라의 경우에 처음부터 나누어진 모습으로 출발된것이 아니라 백제에서 출발한 석탑조형의 의지는 당시 적대국이면서 교류를 하던

12) 金禧庚, 韓國의 美術 2. 塔, 열화당,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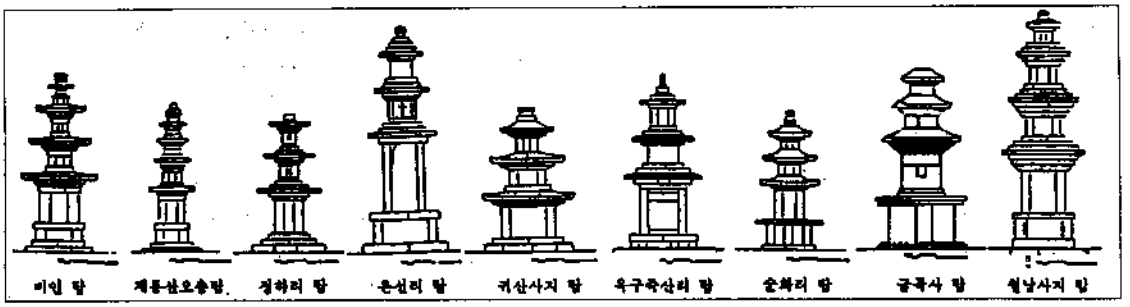

그림 3. 백제탑 형식 계승의 고려탑

신라에 자극과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낀 신라는 중국의 조형의지를 연계시켜 불탑을 다른 모습의 탑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백제의 건축술이 우수하였다는 상식적인 논거와 의성 탑리석탑등 신라초기석탑에서 나타나는 조형의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백제가 "寺塔甚多"의 나라로 널리 국외에 알려진 사실이나 당시 阿非知를 비롯한 백제의 공인들이 신라의 한복판에 삼국제일의 황룡사9층목탑을 세운것이나 백제의 寺工이나 瓦博士등이 바다 건너 일본에 최초의 堂塔伽藍 飛鳥寺를 조영하여 준 것은 백제 공인들의 기술이 뛰어났고 이들 상호간에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의미한다. 신라탑의 시원형식인 의성 탑리5층석탑에 나타난 여러가지 의장요소들은 백제석탑양식이 신라석탑형식에 끼친 영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즉 미륵사지석탑과 정림사지석탑에서 나타나는 바와 유사한 의성탑리석탑의 기단형식과 별석재의 조립, 우주와 탱주의 민흘림, 주두와 창방의 표현, 2층 이상의 탑신에 가둥이 있어 柱間을 형성한 점, 내부공간을 암시하는 감실표현, 석재로 조형한 재료사용의 고집등은 백제석탑양식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13] 이러한 영향은 비단 의성탑리석탑에 국한되지 않고 감은사지석탑과 고선사지석탑에서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라원리석탑과 탑정리석탑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백제탑형식은 결국 신라석탑의 초기형식에 있어 끼친 영향이 컸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라시대에 나타난 벽돌형의 모방형탑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것인가? 신라계석탑의 전형적인 형태가 전탑 혹은 모전석탑에서 출발하고 발전되었으리라 생각하여 모전석탑을 신라석탑의 시원양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탑은 전형적인 석탑과 병행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시기에만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이형적인 탑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모전탑은 석탑조영이 활발했던 신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목조탑에서 석탑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형식일 것이다는 견해이다. 물론 고유섭선생 이후 한국석탑연구에 있어서 선학들은 신라탑의 출발은 분황사모전석탑을 시발로해서 모전석탑이 시원형을 이루었다고 이해하여 왔으나 분황사탑에서 의성탑리석탑으로의 변화와 고선사지석탑과 감은사지석탑으로의 변모와 신라초기석탑에서 나타나는 의장은 오히려 미륵사지석탑쪽에 가까운 형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않될것이다. 분황사모전석탑과 의성탑리석탑의 유사성은 옥개석상단에 나타나는 계단형과 간략화된 감실이다. 오히려 의성탑리석탑에서는 목조탑형식의 의장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견해는 출발에서 부터 양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볼것이 아니라 목조탑을 근간으로 한 하나의 석탑양식에서 출발하여 지역을 달리하면서 점차 두가지의 탑형식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분황사모전석탑 한 기로 끝나버리는

13) 이를 정영호는 백제석탑양식의 東漸이라 하였고 이은창은 백제석탑양식의 계승과 답습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疑似 벽돌탑 형식은 시원탑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탑이 규범적인 것이었다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한 신라에 있어서 최소한 몇기의 모전석탑 혹은 전탑이 더 조영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통일신라기에 접어들어서야 안동을 중심으로 몇기의 벽돌탑이 조영될뿐이다.

이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하였느냐, 혹은 두개의 뿌리에서 출발하였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명확히 결론지을 만한 연구결과가 없어 차치하드라도 한국석탑에 있어서 두개의 커다란 줄기는 지역적 성격을 유지하고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며 면면히 이어져 왔다. 물론 백제계석탑양식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한 정치, 문화적 지배에 의해서 위축되어 통일신라시대에는 장기간 동안 그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퍽 흥미로운 현상이다. 즉 고려개국 이후에는 백제의 구영토에서 백제시대 이루어졌던 양식의 석탑들이 많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수나 부흥의 염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러한 형식의 대표적인 유구는 王宮理5層石塔, 庇仁5層石塔, 長蝦理3層石塔, 鷄龍山男妹塔, 井邑 隱仙里3層石塔, 歸信寺石塔, 沃溝 竹山里 3層石塔등이다.[14](도면3)

그동안 한국의 불탑연구를 수행하였던 선학들은 한국석탑은 신라석탑이라는 등식을 연상할만치 신라의 전형석탑에 치중되어 왔던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이유는 현존하는 백제석탑이 2기에 불과하고 통일신라시대에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어 양식상 발전이 단절된 이유도 있다고 생각된다.

나. 兩塔形式에 있어 양식상의 차이

그렇다면 백제탑형식과 신라탑형식은 양식상 어떤 차이가 있는가? 논리의 전개상 미륵사지석탑과 분황사모전석탑을 두 양식의 시원적인 탑으로 설정하고 이에서 더욱 발전된 전형적인 탑으로 정림사지석탑과 석가탑을 설정하여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정림사지석탑과 석가탑이 동시대의 것은 아니나 양 석탑양식을 대표적으로 비교하고자 한 것임을 밝힌다.

한국석탑의 출발점에서 그 모습을 나타낸 석탑은 백제 무왕대(600-640)에 건립된 미륵사지석탑과 선덕왕3년(634)에 건립된 분황사모전석탑이다. 전자는 한국석탑 중에서 최고최대이며 앞서 유행했던 목조고루형식탑을 석조로 가장 충실히 옮긴 석탑의 祖形이다. 후자 역시 고신라의 王京이었던 경주에서 석재로 벽돌(塼)을 모방하여 출발한 模塼石塔이지만 신라석탑건축의 효시이다. 이 양탑을 한국석탑의 시원적석탑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조형특성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1) 百濟.新羅 兩石塔樣式의 始原石塔 比較考察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양탑을 두 양식의 시원적 형태로 판단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창건연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芬皇寺石塔의 창건연대에 관하여는 「三國史記」 卷五 新羅本記 第五에 "善德王三年春正月改元仁平芬皇寺成"이라 하여 이탑의 건립연대에 대하여는 634년으로 異論이 없다.

그러나 彌勒寺址石塔의 창건연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日人학자들에 의하여 통일신라초로 추정되었으나[15] 현재까지의 결과는 「三國遺事」 武王條에 기록된 내용대로 백제 무왕대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그 기간이 막연하나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헌상 창건시기에 약간의 이론이 있다. 즉 하나의 이론은 彌勒寺를 王興寺로 표현하는 三國遺事 武王條 脚註의 "國史云 王興寺"라

14) 李殷昌, 百濟의 石塔, 百濟의 彫刻과 美術,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2.

15) 미륵사지석탑의 건립연대를 關野貞은 통일신라초로 추정하고 藤島亥治郎은 미륵사의 창건연대는 백제 무왕대로 추정하였으나 이 석탑의 건립연대를 사찰창건과는 달리 통일신라초로 추정하였다. 杉山信三도 역시 통일신라초로 답습하여 추정하고 있다.

표 1. 百濟·新羅 兩石塔樣式의 始源石塔 比較考察

石塔名	彌勒寺址多層石塔 (국보 11호)	芬皇寺模塼石塔 (국보 30호)
位置	·全北 益山郡 金馬面 箕陽里	·慶北 慶州市 九黃洞
創建年代	·百濟 武王代(600-640)	·古新羅 善德王 3年(634)
材料	·淡灰白色의 花崗岩	·灰黑色의 安山岩을 벽돌모양으로 가공함. 기단 및 龕室은 화강암을 併用함.
層數	·9층	·층수는 7층 혹은 9층
基壇部	·하층기단이 극히 간단히 표현되고 상층기단이 뚜렷이 구성된 초기적 이중기단이다. ·초석과 계단을 갖춘 목조건축의 기단형태이다. ·갑석에 부연이 없다고 판단된다. ·탑신부에 비해 기단부가 낮고 적다. 기단의 폭이 1층 옥개에 비해 좁다. ·사자를 두어 장엄을 꾀하였다. ·초석은 상하2단으로 되어 있다.	·野石으로 쌓은 1단의 石壇위에 일단의 넓은 화강암판석을 놓고 그 위에 초층 탑신을 놓았다. ·191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수리하였으나 원래 石階의 계획도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다. ·탑신부에 비해 기단부의 폭이 의외로 넓다. ·네 모서리에 사자를 두어 장엄을 꾀하였다.
塔身部	·柱形으로 탑신을 方三間으로 나눔 ·十字形 通路와 중앙에 擦柱가 있다. ·입구에 인왕상이 없다. ·초층 우주에 민흘림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탑신전체가 오금을 이루었다. ·초층구성에 있어 초석, 고맥이돌, 문선대, 상인방,하인방,창방,평방 등 목조가구 형식을 이루었다. ·탑신부 폭의 체감은 완만하나 높이의 체감은 급하다. ·공포를 대신한듯한 包壁*이 있다.	·柱形이 없이 模塼石 만을 쌓아 탑신을 이루었다. ·4면에 龕室을 만들었다. ·입구에 仁王像이 있다. ·上部를 향하여 탑신이 오금을 이루었다. ·소형석재로 조적을 한 까닭에 감실부분에서만 가구적 기법을 보일 뿐이다. ·탑신부 폭의 체감은 다소 완만하나 높이의 체감은 현저히 급격하다.
屋蓋石	·옥개받침이 5층까지는 3단으로 6층에서는 4단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 수가 늘어난다. 받침형태는 역사다리꼴이며 상하2매의 석재로 구성되었다. ·낙수면이 곡선이다. ·추녀끝이 直切되었다. ·옥개석의 반전이 뚜렷하다. ·3,4단의 탑신괴임대가 있다. ·우동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옥개석의 처마끝을 연결하는 선이 직선이나 현수선이 아닌 포물선이다.	·옥개받침은 6단내지 5단으로 윗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낙수면이 段狀으로 돌여 쌓았다. ·반전을 아주 미세하게 느낄 수 있다. ·1층이외는 탑신괴임대가 없다. ·우동부분을 선으로 표현함.
用尺	·高麗尺(東魏尺)을 사용하였으며 柱間의 1/10을 기본단위로 하였다.	·高麗尺?

* 김홍식.전라북도, 미륵사지서탑실측및 동탑복원설계보고서,1979.1.
그러나 이 경우 包壁이라는 용어보다는 壁石이라는 용어가 적당할것 같다.

는 기록과 삼국유사 法王禁殺條의 "其寺亦名彌勒寺"라는 기록이 있어 무왕대에 건립한 왕흥사가 아닌가 하는 혼란을 주고 있는데 武王35年의 "王興寺成"이 "彌勒寺成"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洪思俊의 견해[16]가 있어 정리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삼국유사의 창건연기에 註書를 달아 옛책에 " 武康이라함은 잘못이다. 백제는 武康王이 없다." 라고 하여 武康을 武王으로 부르고 있는데 李丙燾는 오히려 武寧王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17]

특히 미륵사의 창건연대를 논할때 「三國事記」의 기록인 "眞平王遣百工助之" 즉 신라의 진평왕이 여러 工人을 백제에 보내어 미륵사의 공사를 도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眞平王 在位(579-632)의 어느 시기일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즉 미륵사가 武王代에 이루어졌고 眞平王이 "百工助之"할 수 있는 기간도 진평왕의 재위기간인 32년 사이에 있었다면 百濟의 模木石塔에 관한 기술이 전해졌거나 최소한 상호 기술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동서로 並存되어 있던 양 국가들 중에서 거대한 模木石塔을 건립한다는 백제에서의 정보는 신라를 크게 자극하였을 것이고, 이에 신라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模塼石塔의 건립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겠다.[18] 양석탑의 구성부위들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륵사지석탑 하층기단 폭이 약41尺, 상층기단 폭이 35.5尺인데 비하여 분황사모전석탑의 현존 기단 폭은 약43尺의 단층기단으로 탑신부의 규모에 비하여 넓은 편이다. 분황사모전석탑의 이렇게 넓은 기단을 이 탑의 조형계획에서 인정한다면 초층탑신의 감실과 연관시켜 석조계단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模塼石塔이면서도 탑신에 오금과 옥개에 미세한 반전을 나타낸 것은 한국적인 지붕 輪廓美의 片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중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비슷한 때에 발생한 한반도 동서양국의 시원형석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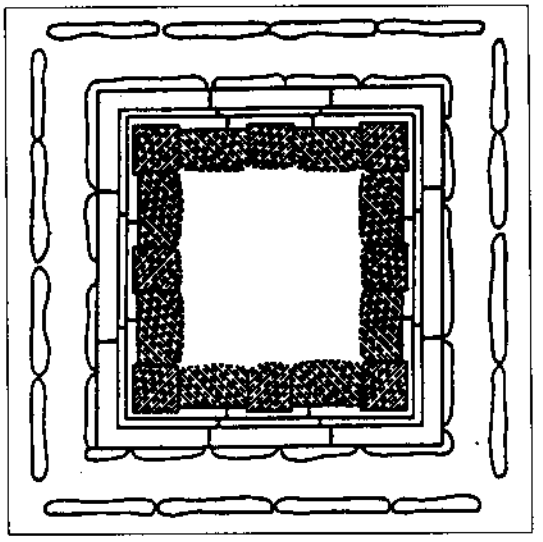

그림 4. 정림사지5층석탑 외곽석배열

공적으로는 선행되었던 木塔형식을 기본으로 백제에서의 模木石塔을 古新羅에서는 模塼石塔으로 漸移시켰고, 횡적으로는 서로 돕고 영향을 끼치면서도 독창적인 조형을 이룩하여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내부공간과 기단 및 석조계단, 처마의 표현, 탑신의 오금기법 등에서는 일맥상통한 조형의지를 보이고 있다.[20]

양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표-1>과 같다.

(2) 百濟, 新羅典型石塔 比較考察

또한 이처럼 시원적인 형태를 벗어나 형식면에서 완숙한 모습을 보인 전형탑으로는 定林寺址5層石塔과 佛國寺 釋迦塔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시기적으로 1세기 이상의 차이를 보이나 한국석탑을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두양식의 대표적 석탑으로 손꼽을 수 있다.

정림사지5층석탑은 목탑을 직접적으로 模寫한

16) 洪思俊, 彌勒寺址考, 馬韓·百濟文化.創刊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1975,pp.163-169.

17) 이병도, 백제미륵사의 창건연대에 관하여, 마한·백제문화, 1975.

18) 林永培, 韓國塔婆建築의 造形特性에 관한 연구, 弘益大學校 大學院 1981, p.41.

19)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3, pp.103-104.

20) 林永培, 前揭論文,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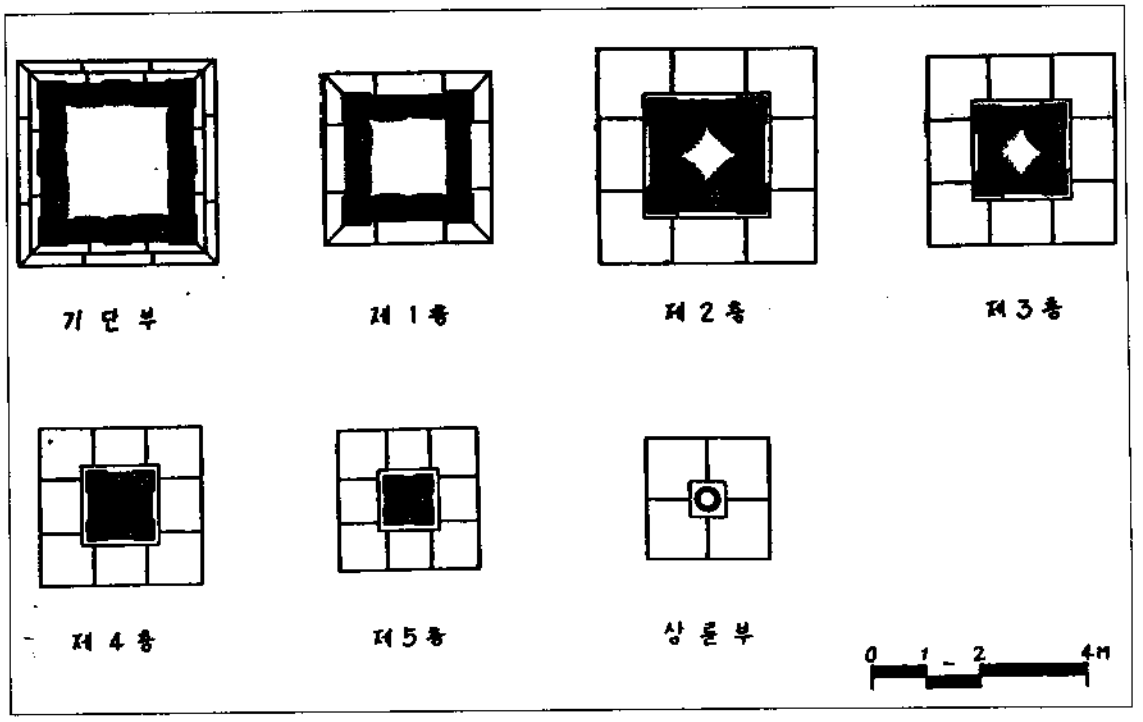

그림 5. 정림사지5 층석탑 분해도

수법의 미륵사지석탑을 근본형으로 하고 있으나 석재로 석탑을 조립하는데 따르는 특성을 더욱 발전시켜 구축하려는 조형의지가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이 탑은 단층의 기단을 하고 있으나 기단밑에 다시 一枚의 지대석을 놓아 안정하게 하였다. 그 윗면에는 비교적 얕은 기단을 만들었으며 石階는 이 탑에서는 완전히 생략되면서 기단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초층탑신에는 민흘림을 가진 4우주가 약간 안쏠림을 하여 세워졌다. 탑신 위에는 2단의 옥개받침을 내어 쌓았는데 위의 것은 두께가 약간 두껍고 모서리를 抹角하여 하부는 경사진면으로 되었는데 이는 목조두공형식을 단순하게 표현한것이 아닌가 한다.

옥개받침 위에 얹어진 옥개석은 넓고 얇으며 隅棟을 나타내었고 처마곡선이 미륵사지탑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서리부분을 약간 들어올려 목조건축의 처마부분의 의장수법을 따라 경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2층탑신의 높이는 초층에 비하여 급격히 줄어드나 3층부터는 완만한 체감을 보이고 반면 탑신폭은 점차적으로 체감되어 미륵사지탑 보다 고준한 맛을 보인다. 석재의 편수도 미륵사지석탑에 비하여 많이 감소되어 밖으로만 발현되는 가치를 중시하여 塊體化로 전개되고 간단, 명쾌하게 정비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 석탑의 조탑시기는 7세기중반으로 미륵사지석탑의 다음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본학자들이 이 탑을 <平濟塔>이라 주장하여 초층탑신에 각자된 唐顯慶5년 즉 백제 의자왕 20년(660년)으로 추정하였으나 백제 말기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백제탑으로 보는 것이 정설화되었다.[21]

석가탑(사진12)은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양식상으로는 정림사지석탑에 대응되는 신라의 전형탑으로 경덕왕10년(751)에 건립되었다. 석탑주위의 지면에는 7.7미터가량의 塔區를 구성하고 네모퉁이와 이들의 중앙에 蓮花를 조각한 八方金剛座가 있다.(사진13) 이 팔방금강좌는 八部神像을 안치한 자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八部菩薩을 안치

21) 고유섭, 한국탑파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표 2. 百濟·新羅 兩石塔樣式의 典型石塔 比較考察

石塔名 位置 創建年代 材料	定林寺址5層石塔(국보 9호) ·忠南 夫餘 ·7세기 초반 ·花崗岩		釋迦塔(佛國寺3層石塔):국보 21호 ·慶州 佛國寺 ·景德王 10年(751) ·花崗岩
基壇部	형 식	·단층기단 혹은 초기적 2중기단	·2중기단
	구 성	·別石材로 규칙적 조합 ·1개의 擇柱와 兩隅柱 ·두툼하고 평평한 갑석 ·갑석의 상하면에 부연·탑신괴임 등의 부가적 장식이 없다. ·기단외곽에 塔區의 흔적이 있음.(도면4)	·별석조합 혹은 단일석에 模刻 ·2개의 탱주와 양우주 ·얇고 상부에 경사가 있는 갑석 ·갑석의 상하에 부연과 몰딩 등이 첨가됨. ·후기탑에는 면석에 각종 장식이 부가됨 ·기단외곽에 蓮花座를 둔 塔區가 形成됨(사진13)
塔身部	塔身	·초층 탑신은 別石으로 조립됨. ·2층이상은 부재의 수가 줄어드나 수매의 별석으로 조립됨. ·2층탑신의 급격한 체감 ·우주의 민흘림 ·탑신의 오금기법	·단일석의 탑신 ·우주가 模刻刻出됨 ·체감이 급하지 않음 ·우주의 민흘림이 없음 ·탑신의 오금기법이 나타나지 않음
	탑신괴임	·별석으로 된 1단의 두툼한 탑신괴임	·옥개석이나 갑석과 동일한 석재에 몰딩형으로 약화된 2단의 탑신괴임을 나타냄
	屋蓋石	·平薄廣大한 屋蓋石 ·田字4매석, 圍字8매석 조립 ·낙수면의 완만한 구배 ·경쾌한 反曲 ·수직형을 이룬 처마의 단부 ·두툼한 우동(내림마루) ·부드러운 곡선을 이룸 ·완만한 체감. (도면5)	·좁고 두툼한 둔중한 모습의 옥개석 ·口字形 단일석 ·낙수면의 급한 구배 ·전각의 反曲이 없는 수평 ·斜線을 이룬 처마의 단부 ·내림마루가 약한 선을 이룸 ·강직한 직선으로 이루어짐
	옥개받침	·옥개석과 받침석이 별개의 석재임 ·두꺼운 斜菱形·角形받침 ·2단의 받침. (도면6)	·옥개석과 받침이 단일석에 刻出됨 ·얇은 角形받침 ·5단의 받침. (도면6)
全體外觀	·가볍고 부드러운 곡선을 주로 사용함 ·여성적이다. ·부드럽고 온아하다. ·체감율이 다소 급하다. ·체감에 있어 等長,等割的이다.** ·地割의 기본단위를 塔基底部로 함. ·옥개석 단부의 연결 각도는 80 ° 정도임.		·날카롭고 강한 직선을 주로 사용 ·남성적이다. ·차갑고 이지적이다. ·하층기단의 폭은 탑신의 높이와 같다.* ·체감에 있어 等差,等比的이다.** ·地割의 기본단위를 基底部로 함. ·옥개석 단부의 연결 각도는 85 ° 가량임.
用尺	·東魏尺 사용		·唐尺 사용

* 金元龍, 韓國美術小史, 삼성미술문화재단,p107.

** 韓國 上代建築의 硏究, 米田美代治, 신영훈譯, 동산문화사편,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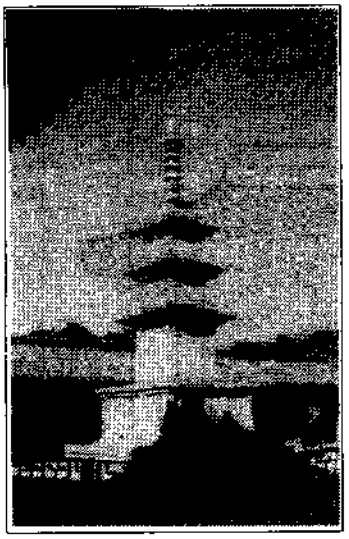

사진 12. 석가탑 전경

했던곳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으며 그가 설법한 때 하늘에서 뿌려진 꽃 즉 만다라꽃으로 해석하여 신성한 구역의 표시라 하기도 한다.[22]

하층기단갑석은 4매의 돌로 구성되었고 2단의 상층기단받침을 도드라지게 새겼는데 윗단은 거의 직각이고 아랫단은 둥글게 굴렸으며 낙수면에는 약간의 물매를 두었다. 상층기단 면석은 4매의 돌로 네귀에서 엇물려 짜였으며 각면 모서리에는 귀기둥과 면석의 가운데에 기둥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2층기단 위에는 초층탑신이 놓였는데 이는 단일석으로 구성되어 그 모서리에 우주를 彫出하였으며, 층급받침과 옥개석도 단일석으로 조출하였다. 초층의 탑신고는 높아서 장중한 감을 주며 각층 옥개부의 정상부에는 2단의 탑신괴임을 두었다. 상륜부는 노반과 복발, 앙화까지만 조성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부분은 1966년 수리할 당시 남원 실상사탑의 상륜부를 고증하여 복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탑은 전체와 세부의 비례관계가 치밀하게 고안되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도록 조형된 것으로서 기술의 정교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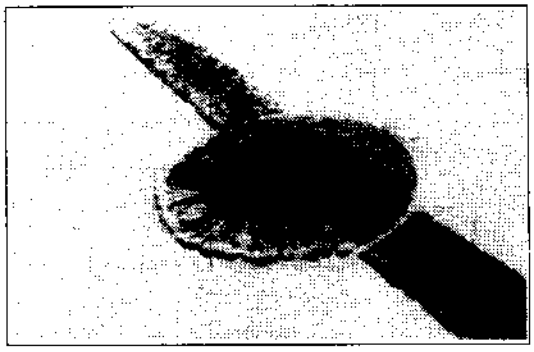

사진 13. 석가탑주변의 金剛座

남성적이며 웅건한 자태는 한국석탑의 전형적인 대표작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 양탑의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점을 고찰해 보면 <표-2>와 같다.

5. 日本에서 나타난 百濟塔形式

日本書紀의 기록에 의하면 飛鳥時代인 敏達天皇 十四年(585) 春二月 蘇我大臣馬子가 大野丘의 北에 塔을 세웠는데 司馬達등이 舍利를 탑의 주두에 넣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일본에 있어 造塔의 시작이다. 敏達天皇十四年은 불교가 일본에 전래된 欽明天皇十三年(552)보다 33년후의 일이기 때문에 불교전래후에 불탑의 조영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것이다.[23] 이때의 탑은 어떠한 형태였는가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로부터 3년후인 崇峻天皇元年(588)에 飛鳥寺가 조영되고 593년에 탑의 찰주를 세웠다 한다. 그러나 飛鳥寺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木造重層塔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불탑은 목조탑으로 이해되며 이후 일본의 불탑은 목탑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당시에 문화의 전달과정에서 백제인들이 일본의 佛寺造營과 造塔에 기여한바가 클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불탑은 한국과 중국과는

22)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고건축. 제7호, 1985.12. p.4.
張慧德, 感恩寺址 東塔의 平面과 立面比에 관한 硏究, 文化財 제27호, 1994.12, p.280

23) 石田茂作, 日本佛塔の硏究, 講談社, 22쪽
福地謙四郎, 日本の石造層塔, 理工學社, 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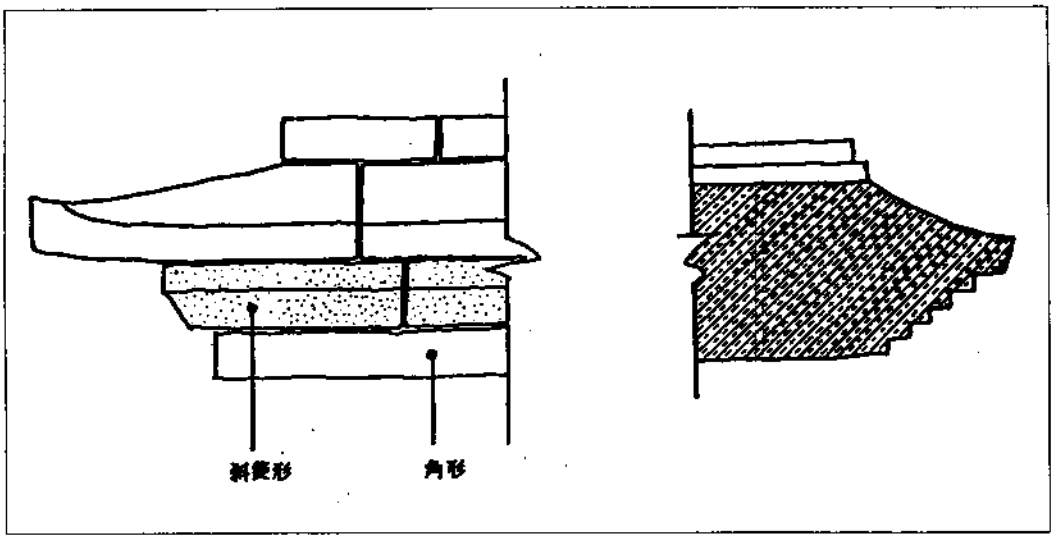

그림 6. 옥개받침의 형식비교

달리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목조탑을 제외한 탑형식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石造層塔(석탑을 부르는 일본식표현)이라 할것이다. 일본의 石造層塔은 奈良時代의 것이 현존하는 유구중에서 가장 오래된것이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층탑인 石塔寺三重石塔이 백제석탑적인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탑의 건립배경은 백제의 멸망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 유민들이 석탑을 세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石塔寺라 하였으며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 석탑사의 3층석탑을 모범으로 하여 점차 석탑건립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奈良시대 후기나 平安시대에 이르러 석탑을 건립하게 된것이라 생각된다.

이탑은 滋賀縣 蒲生郡 蒲生町에 있는석탑사의 언덕위에 있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聖德太子가 건립했다고 전해지고 寬弘三年(1006)에 명속으로부터 고석탑 1가가 출토되어 이로 인하여 석탑사라는 사명이 붙게 되었다. 이 탑은 阿育王所造 팔만사천탑의 하나라고 전해져 <源平盛衰記>에도 이미 이러한 기사가 보이나[24] 일본에 불교전래기와 관련지어 본다면 잘못된 내용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근래에 간행된 연구들에[25] 의하면 일본에 있는 3층석탑으로서는 最大이고 最古인 것으로 상륜은 후에 보수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석탑의 체감이 좋고 안정감이 있어서 대륙적인 느낌을 주는 탑, 즉 백제식탑이라 평하고 있다. 大智天皇8년(669)에 신라에 패망한 백제의 귀화인 700여명이 蒲生郡에 이주해왔으며 이 탑은 귀화인들이 고향을 사모하여 고향에서와 같은 양식으로 불사를 창건하고 모국의 양식에 의하여 공양탑이 아니라 가람의 중심이 되는 탑을 세웠는데 奈良시대 전기에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화강암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탑도 역시 화강암을 사용한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였다.

이 삼층탑은 편평한 자연석의 기초위에 2매의 직방체 석재를 합하여 새운 형태로 초층의 축부를 이루었다. 축부의 높이가 폭보다 훨씬 높은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다. 단일석으로 되어 있는 옥개석의 선은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으로 처마부분에는 가벼운 반전이 있고 처마가 깊은 것은 백제식탑의 특징이라 생각된다. 2층,3층의 축부는 거의 정방체에 가까운 단일석이며 삼층옥개

24) 鄭永鎬, 百濟의 石塔과 그 傳播, 百濟의 彫刻과 美術, 공주대학교 박물관, 249쪽, 1992.

25) 若杉 慧, 日本 石塔, 1970
福地謙四郎, 日本の石造層塔, 理工學社, 53쪽

석 위에는 상윤이 올려져 있다. 이 탑의 주위에는 수천의 五輪塔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탑 주위를 둘러쌓고 있다.

이 탑은 우선 단층기단인 점과 높직한 초층탑신석, 2층과 3층의 체감이 우리나라 석탑의 체감과 같다. 옥개석에 있어서도 광대하고 2,3층의 체감도 뚜렷하여 전체적으로 균형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석탑에서는 체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같은 크기의 탑신과 옥개석을 몇층씩 단일석으로 올렸는데 이 석탑사의 석탑은 한국의 전형적인 석탑의 양식과 같이 탑신석과 옥개석이 별개의 돌로 조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장하리석탑과 너무 흡사하며 이는 당연히 정림사지석탑을 그 원형으로 삼았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곳 滋賀縣 일대는 백제인이 많이 건너가 살았으며 앞선 백제의 문화가 옮겨진 곳이다. 이곳 가까이에 백제사라는 사찰이 건립되어 있는 것도 그 한 증거이다.

6. 結語

어떤 현상을 대비적인 관점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보편타당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상이한 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미가 없는 현상을 과대평가하거나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외피적으로 두 탑양식이 갖는 차이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 그 내재적 의미를 찾고 이를 근거로 양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百濟系石塔과 新羅系石塔에 대한 對比的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체로 신라계석탑이 날카로운 직선을 많이 쓰고 옥개석의 받침과 처마의 거리가 짧아 강건하고 이지적인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백제계석탑은 석재 절단부의 모든 銳角을 죽이고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주로 써서 목조건축의 효과를 노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따사로운 감이 흐른다. 이를 남성적인 것에 비해 여성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것이다.

나. 신라계석탑이 單一材를 주로 사용한 반면 백제계석탑은 다수의 別石材를 사용, 조립하여 목조건축의 구성기법을 따르고 있다. 신라석탑이 괴체화되기 이전인 고선사지탑이나 감은사지탑의 경우 低石과 中石을 단일석으로 한 예는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 백제탑의 경우 기단은 初期的二重基壇 혹은 單層基壇에서 단층기단으로 변모하고 그 구성석재가 모두 別石材로 규칙적으로 짜여져 있으며 甲石上下에 副緣이나 Moulding 등의 부가적 장식이 없다. 신라탑의 경우 단층기단에서 전형적인 2중기단으로 변모되고 초기에는 별석재였으나 나중에는 塊體形을 이루어 소수의 큰 석재를 조립하거나 단일석재에 모각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라. 백제탑의 경우 地面위에 계단과 礎石을 놓는 木造建築의 수법을 의식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신라탑의 경우는 기단위에 탑신을 직접 세우고 있다.

마. 塔身의 높이가 2층에서 급격히 遞減하는 체감율은 백제탑의 경우가 신라탑보다 다소 크다. 또한 옥개석의 단부를 연결하는 선이 이루는 각도는 정림사지석탑의 경우 80도 정도이고 석가탑의 경우는 85도 정도이다. 그러나 양탑 모두 체감율이 큰편이어서 안정된 균형미를 이룬다.

바. 백제탑은 隅柱에 민흘림과 탑신에 오금수법이 나타나고 있으나 신라탑의 경우 초기탑인 의성탑리석탑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의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 백제탑의 屋蓋石 형태는 얇고 넓어 길게 돌출되어 나왔으며, 落水面의 경사는 완만하고,

田字形 혹은 圖字形의 조합을 보인다. 뚜렷한 隅棟, 경쾌한 反轉, 처마 단부면의 直切 등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신라탑의 옥개석 형태는 단일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두툼하고 좁아 짧게 돌출되어 둔중하고, 낙수면의 경사는 전탑형을 이루는 경우와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우동은 가늘게 선으로 표현되고 전각부분에 반전이 없고 처마斷部面이 斜切된 것이 특징이다.

아. 백제탑의 옥개받침은 커다란 角形이나 斜菱形 받침의 2단으로 되어 있다. 신라탑의 옥개받침은 얇은 각형으로 4-5단을 이룬다.

자. 백제탑은 1층 옥개석의 폭이 기단 갑석의 폭보다 넓어 빗물이 기단밖으로 떨어지는 목조건축의 처마와 기단의 형식과 같다. 반면 신라탑은 1층 옥개석의 폭이 기단갑석의 폭보다 좁아 빗물이 기단으로 떨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목탑과 전탑으로 그 조형을 삼는 양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차. 백제탑은 甲石과 塔身의 짜임이나 隅柱와 面石의 짜임에 있어 甲石과 隅柱에 홈을 파서 塔身과 面石을 끼워 넣는 수법을 쓰고 있으나 신라탑의 경우는 초기탑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나 전형적인 탑으로 변모되고 塊體化되면서 단일석에 부재들을 모각하기 때문에 부재들을 조립하는 기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카. 백제탑의 경우 屋蓋石 위에 뚜렷한 角形 塔身괴임대가 대부분 別石으로 마련되었다. 반면 신라탑은 옥개석과 단일석으로 角弧2단의 몰딩을 두어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타. 義城塔里五層石塔, 感恩寺三層石塔, 高仙寺三層石塔등 신라의 초기형식탑들은 목조가구형식에서 출발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는 백제탑형식이 신라의 초기탑형식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흔히 백제탑의 祖形은 목탑형식, 신라탑의 조형은 전탑형식이라는 단순대비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파. 신라계석탑의 전형적인 형태가 전탑 혹은 모전석탑에서 출발하고 발전되었으리라 생각하여 모전석탑을 신라석탑의 시원양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탑은 전형적인 석탑과 병행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한 시기에만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일시적이고 이형적인 탑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선학들은 신라탑의 출발은 분황사모전석탑을 시발로해서 모전석탑이 시원형을 이루었다고 이해하여 왔으나 분황사탑에서 의성탑리석탑으로의 변화와 고선사지석탑과 감은사지석탑으로의 변모와 신라초기석탑에서 나타나는 의장은 오히려 미륵사지석탑쪽에 가까운 형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않될것이다.

분황사모전석탑과 의성탑리석탑의 유사성은 옥개석상단에 나타나는 계단형과 간략화된 감실이다. 오히려 의성탑리석탑에서는 목조탑형식의 의장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 일본의 불탑조영에 있어 백제의 건축술이 기여한바 크다. 특히 일본의 석조층탑의 경우 最古의 것이라 지칭되고 있는 石塔寺三重塔은 정림사지석탑과 너무나 유사하여 그 조형을 백제의 석탑에서 찾을 수있다.

참고문헌

張忠植, 新羅石塔研究,一志社
三國遺事
高裕燮, 韓國石塔研究, 同和出版公社
尹武炳, 定林寺, 충남대학교 박물관.
文明大, 百濟佛塔의 一考察, 남도영박사 회갑기념논총.
洪再善, 百濟系石塔의 研究, 황수영박사 고희기념 미술사학논총,통문관,1988
鄭永鎬, 百濟의 石塔과 그 傳播, 百濟의 彫刻과 美術, 공주대학교 박물관
鄭永鎬, 韓國石塔樣式의 變遷, 韓國의 美 9, 石塔, 中央日報社刊, 1989
千得琰, 百濟系石塔의 造形特性과 變遷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鄭善宗, 百濟石塔에 관한 一考察, 史學志 제20집, 1986, 단국대학교사학회
金禧庚, 韓國의 美術 2. 塔, 열화당
李殷昌, 百濟의 石塔, 百濟의 彫刻과 美術,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2.
洪思俊, 彌勒寺址考, 馬韓・百濟文化. 創刊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5.
이병도, 백제미륵사의 창건연대에 관하여, 마한·백제문화, 1975.
林永培, 韓國塔婆建築의 造形特性에 관한 연구, 弘益大學校 大學院 1981.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3.
김홍식.전라북도, 미륵사지서탑실측및 동탑복원설계보고서,1979.1.
고유섭, 한국탑파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고건축. 제7호, 1985.12.
張憲德, 感恩寺址 東塔의 平面과 立面比에 관한 研究, 文化財 제27호, 1994.12.
金元龍, 韓國美術小史, 삼성미술문화재단.
韓國 上代建築의 研究, 米田美代治, 신영훈譯, 동산문화사편.
石田茂作, 日本佛塔の研究, 講談社.
福地謙四郎, 日本の石造層塔, 理工學社.
鄭永鎬, 百濟의 石塔과 그 傳播, 百濟의 彫刻과 美術,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2.
若杉 慧, 日本 石塔, 1970.
福地謙四郎, 日本の石造層塔, 理工學社.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between Paekche and Silla Style Stone Pagodas

Cheon, Deuk-You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Han, Seung-Hoon
Kim, Jin-su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course)

ABSTRACT

The wooden pagoda was first appeared in about late 4th century in Korea. And between the late 6th century and the eary 7th centry, the multistoried wooden pagoda was replaced with the stone pagodas, in order to improve their stability and durability.

In Three-kingdom and Unificated-Silla period, there are two types of stone stupas in Korea. The one is Paekche(百濟)style , and the other is Silla(新羅) style stone pagoda. These two styles are basically different in each part like podium, roof stone, body stone, structure and the others. Two types of stupas are distributed in two regions which devided into the East(Silla territory) and West(Paekche territory) in the Korean peninsular.

The origin of the Korean stone pagoda can be traced to the Paekche dynasty and Silla dynasty. The former were the result of the careful study of their skillful wooden pagodas, where the latter were actualy originated from copying their sundried brick pagodas with stone. Two important pagodas of the primitive stage are the stone pagoda of Miruksa(彌勒寺) temple in Iksan and Bunhwangsa(芬皇寺) temple in Kyungju. These two pagoda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in the style of their construction.

Silla style have sharp straight lines and short distance between roof stone and eaves. They give us strong as well as intelletural feeling. Howerever, Paekche style has curved lines and dull angles of cutting area of stone, they give us soft feeling.